

심오한 불교정신 깃든 詩集 박희진의 「散花歌」

— 「불교문학」편집장 金泓星씨

지금 독서중

금년 봄 많은 수의 문학계간지가 창간·복간된 가운데 「불교문학」이라는, 다분히 '종파적'

느낌(?)을 주는 문학계간지가 창간되었다. 그렇다면 이 잡지는 불교계의 문화사업의 일환에 불과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불교문학」편집장을 맡고 있는 시인 김홍성씨(36)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우린 ‘불교’문학보다는 불교‘문학’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포교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교신자만이 지면을 차지하는 편협한 자세에서 벗어나 전문학인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문학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엔 제목 때문에 고개를 가우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3호가 나오는 동안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조계종단의 지원이 의외로 부족해서 재정적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성지 기자직을 편력하다 ‘글 쓰는 게 싫증이나서’ 한 1년 집에서 두문불출하던 그는 현재 「불교문학」의 주간을 맡고 있는 향봉스님을 만나 ‘첫눈에’ 의기투합, 지금까지 이 잡지의 편집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가 요즘 읽고 다시 읽고 하는 책이 바로 朴喜雅시집 「산화가」(佛日출판사·88)이다.

“박희진시인은 제 고등학교 은사시기도 한데, 얼마전 이 시집을 보내주시더군요. 지금은 선생자리마저 그만두시고 시만 쓰면서 생활하시지요. 수도승같다고나 할까요. 어떤 범접하기 어려운 고독과 신비에 둘러싸인 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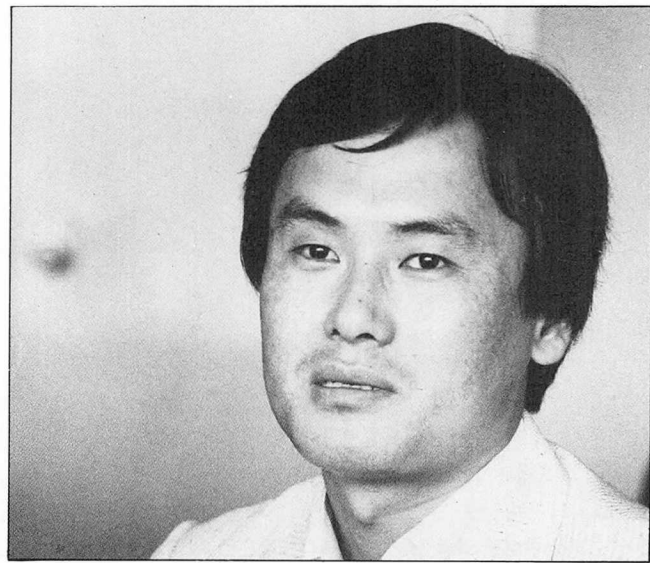
전부 66편의 시가 수록된 「산화가」는

총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 「新郷歌集」은 현존하는 신라 향가 14수를 독특하게 현대화, 재창조한 작품들이고 제2부와 제3부는 불교적 사유와 심상을 보여주는 시편들이다. 문학 혹은 예술이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면 자연히 종교와 만나게 된다. 萬海와 未堂을 이어 이제 박희진시인이 불교라는 심오한 정신세계의 우물에 두레박을 던진 것이다. 시인 자신이 서문에서 “세상에 태어나 불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그것만으로도 나는 무상의 보람을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분의 시를 읽으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나날의 ‘좁쌀만한’ 공간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를 숨쉴 수 있는 활달함과 대범함을 느끼게 돼요. 사실 이런 경지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로 도통한 것과 도통한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미치거든요. 읽는 사람에게 따라서 ‘삶의 구체성이 없다’든지 ‘천상에만 시선을 던진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시세계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직접 시를 쓰기도 하는 김홍성씨가 믿고 있는 문학관은 괴테가 말한 ‘위대한 단순함’이다. 그는 요즘 젊은 시인들이나 평론가들의 글이 너무 복잡하고 현란해서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즘 잘 팔린다는 「南部軍」을 나도 사서 읽었어요. 무척 재미있더군요.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나로 하여금 혁명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로맨티시즘의 시대는 끝난거죠. 남은 것은 몇푼의 월급과 마누라, 그리고 혁명에의 환상 뿐이죠.” — 남진우 기자



중립화 통일 모색하는 時論集 李昊宰의 「새로운 韓民族外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崔亨根씨

지금 독서중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던 ‘햇 이슈’는 무엇보다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통일논의였다. 40년 동안이나 고착되어버린 분단의 현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전체의 침체된 분위기에, ‘통일’이란 민족최대의 과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지난 여름의 진통은 확실히 의미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요.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라온 탓도 있겠지만, 김일성을 이상화하는 북한공산집단과 이성적인 통일논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이번 여름, 대학가의 남북한학생회담 논의를 보면서 주변사람들과 통일에 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해보기도 하고 그 분야의 책들도 관심있게 훑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에서 매스컴·저작권분야 연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崔亨根씨(33)는, 그 중에서도 李昊宰교수의 「새로운 韓民族外交」(87·나남)를 가장 흥미롭게 읽고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저자 李교수는, 자신이 고대 정의과 학생시절 가까이 접하며 수업을 들었던 은사이기도 해서 각별함을 느끼게 했다고.

李昊宰교수가 이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중립화통일’이란 용어로 집약될 수 있다. 그는 통일로 향한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남북한 모두가 서로 일방적인 승리를

모색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양측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미·소·중·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바로 중립화통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온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등 갖가지 난제가 가로놓여 있으나, 저자는 통일의 가능성을 비교적 밝게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연구저서라기보다는 85년 전후로 각 지면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시사평론집이지요. 그래서인지 저자 자신의 목소리가 일목요연하게 개진되지 못한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도, 과연 영세중립화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판적인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소한 북한이 맹성적인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도래해야 양측이 활발하게 통일을 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최형근씨는 우리 사회 각계에서 통일에 관한 의견이 보다 자유롭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생 단독으로 협상태이블로 향하는 것은 위험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

최형근씨는 유네스코 맨으로 지난 6년간 각종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전에 없이 음악·미술·사진·문학 등 관심사가 넓어졌다며 웃었다. — 오애리 기자



쾌적한 주거공간, 인간다운 삶 李建榮의 「살고 싶은 집 견고싶은 거리」

—교사 박鎔子씨

지금 독서중

결혼한 여성들의
집욕심, 살림욕심은
굳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아주 당연한 일에
속한다. 때로 그것이

지나쳐 아파트 투기나 호화가구나 하는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집과 예쁜 가구는 누구나 바라는 '작은
사치'일 수 있다.

박鎔子씨(30·구로국민학교 교사)에게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 집단장에 관한
화보집이나 일본잡지를 뒤적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간혹은 '오르지 못할
나무'에 펜스레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그가 제목에 이끌려 손에 들게 된 「살고
싶은 집 견고 싶은 거리」(李建榮, 전예원,
1987)를 읽으며 박용자씨는 좋은 집과
인간다운 환경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좋은 집이 반드시 인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집에 대한 욕망까지 나쁜 것으로
몰아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책이
제공하는 주거문화에 대한 건전한 시각이
좋은 집을 향한 욕망을 적절히 다스리는
차원에서 조화돼야 할 필요는
인정해야겠지요."

「살고 싶은 집 견고 싶은 거리」는
도시공간을 주제로 한 에세이집으로 주택과
주택정책, 거리와 공원, 교통시설, 심지어는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인간다운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날카롭게
성찰한 책. 일종의 문명비평적 시각으로,
우리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주거공간이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

일관된 탐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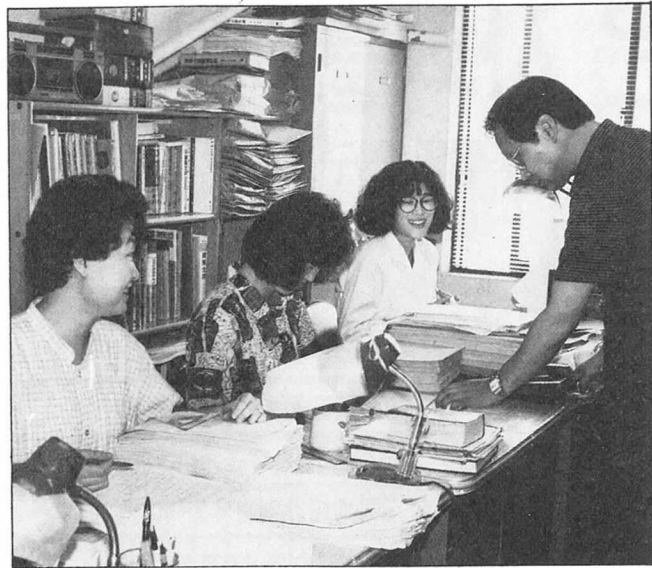
"작게는 내 집, 크게는 우리가 사는 도시
속의 공간들이 제각각의 인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자칫
각박해지기 쉬운 도시인의 삶을 훈훈하게
적시는 '동네의식'이라든가, 혹은 이웃과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의 필요성이
짙막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문장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우리', '안'과 '밖'의
조화야말로 쾌적한 주거공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리라는
것이 박용자씨의 말. 달라진 생활환경 속에서
우리와 밖을 향해 한정없이 열려 있을 수도,
나와 안을 향해 무작정 움츠러들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사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 1인3역의
삶을 분주히 사는 박용자씨가 책을 손에
퍼드는 시간은 그러나 집이 아니라 직장일
경우가 많다. 집에서는 번잡스런 가사를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하교시킨 다음 퇴근 때까지 빈 교실을 지키고
앉아 책을 본다고. 주로 국내작가들의
창작소설을 많이 읽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우리 소설문단의 흐름을 뚜르르 꿰고 있기도
하다. 그런 그가 느끼는 큰 불만이 하나 있다.

"결혼한 여자들에겐 왜 제 방은커녕 책상
하나조차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집을 때 가져온 책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남편의 서가 속에
슬그머니 편입되고 말지요."

—오애리 기자



전통건축에서 현대건축까지 「한국건축총서」 시리즈 전10권

—도서출판 技文堂

지금 제작중

기술도서 전문출판사인
技文堂(대표 姜海作)
이 야심적인
「한국건축총서」
(전10권)를 기획,

제작중에 있다.

"우리나라 건축관계 서적은 유럽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선진기술의 도입에만 급급한 상태지요.
우리는 전문출판사로서 우리나라 기술자에게
선진의 과학기술을 매개시켜 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축·조경·도시계획·인테리어 분야에선
제일의 출판사임을 자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건축분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 '우리의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지요."

강해작 사장(42)은 「한국건축총서」의
기획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현재 건축분야는 新공법의 도입 등으로
현대건축이 눈부시게 발전한 가운데,
서양건축의 그늘 아래에 있던 한국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기문당이 기획하는
「한국건축총서」 시리즈는 한국의 古건축에서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총망라,
정리함으로써 한국건축 분야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되리라는 것이 강사장의 말이다.

- 「한국건축총서」는 우선 1차분으로
- ①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정무용·단국대)
 - ② 「한국전통건축연구」(윤장섭·서울대)
 - ③ 「한국건축사학개요」(한재수·한양대)
 - ④ 「한국궁궐건축」(한재수)
 - ⑤ 「한국건축사」(김동욱·경기대)
 - ⑥ 「한국근대건축사」(김정동·목원대) 등

6권으로 구성, 90년말까지 완간할 계획이다.

내용은 주로 전통건축의 유형 및 특성과
삼국시대 이래의 궁궐건축에서 근대건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순수 전통건축이
근대건축으로 변모하는 과정 등이 분야별로
수록된다. 이하 ⑦~⑩권은 '한국건축 문양
및 현대건축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속간할 예정이다.

"일단은 10권으로 기획했지만 더 좋은
구상과 적절한 필자를 찾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펴낼 계획"이라는 편집부장
박주일씨(50)는 현재 1차분 가운데 원고가
끝난 3권이 편집중에 있고 나머지 3권은 지금
집필중이라고 말한다. 총 제작비 5,5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시리즈는 각권
300~400페이지 분량에 사진자료를 곁들여
B5 판형으로 꾸며서, 날씬 판매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그러나 「한국건축총서」라는 거대한 집을
짓는 일이 그리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막상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업적도
축적된 양이 많지 않아 집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건축」에 대한 좀더
진지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기대하면서
시리즈 완간의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여유를
두게 된 셈이다.

'건축은 인간을 위한 讚歌'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에 맞는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비중있는 이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한국건축총서」
시리즈는 한국건축의 연구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기자